

2020년 추석 명절 가정예배

신앙고백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370장 / 다같이

기 도 / 가족 중에 혹은 인도자

성경봉독 / 고린도후서 4:16-18 / 다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
도다 17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
게 함이니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
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나눔 / 인도자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이 지독하게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시원한 가을이 되었고 만물이 결실하는 계절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견디기 힘든 일이 있으며, 생각처럼 일이 잘 안 풀려서 걱정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일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
우심을 구하게 될 때 고통스러웠던 터위가 지나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로 말미암
아 모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도 지나가게 하시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
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4:16-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
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지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런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
다.

그런데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속사람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속사람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속
사람이란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이가 들

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얼마든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겉모습이 늙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영혼은 얼마든지 강건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은 건강하고 또 연령적으로는 젊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늙고 영혼이 연약해진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자연적인 섭리에 따라서 겉모습은 늙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언제나 젊고 또 건강하다면 그 사람의 삶은 건강하고 복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처럼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을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 우리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 줄 것 같은 것들은 사실 잠깐 있다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의 것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들이 육신을 위해서 일하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힘을 주시고 또한 그 삶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 송 / 384장 / 다같이

주 기 도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